

제 2차 식량안보간담회

일시: 2013년 3월 6일 11:00-13:30

장소: 모심(고대병원앞, 02-924-5551)

외부 참석자:

문헌팔: 한림원, 한국종자포럼 이사장

위남량: 농협중앙회, 양곡사업부 양곡판매단 단장

김용택: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김기봉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곡물사업소 미곡관리팀 차장

내부참석자:

이철호, 이꽃임, 김미경

주제: 쌀의 자급 유지와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

<회의순서>

1. 기존 연구 보고서 review
2. 자유토론
3. 정책과제 제안
4. 국회 세미나 개최안

회 의 록

(쌀 자급에 관한 자유토론)

○ 쌀자급 관련 연구는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경제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 aT센터는 가공용쌀(주로 MMA 물량)을 지자체에 넘기는 일을 담당하고 "쌀가공협회"쪽에서 실무를 담당한다(위남량, 김기봉).

○ 2년 이상된 구곡(재고미)은 최근 쌀 생산량 하락으로 거의 방출시켜 소진한 상태. 부족분은 수입쌀로 메꾸고있다. 쌀 비축량을 전 국민 소비량의 17%정도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"쌀 생산이 많이 된다는 표현"은 문제가 있다(문헌팔). 2002년부터 대북쌀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연간 40-50만톤으로 방출되었다가 2008년부터 대북지원 중단으로 2010년까지 생산량이 누적되었다.

(이철호 이사장님이 작성한 쌀 비축량 확보방안에 관한 논의)

○ 생산량을 늘리는데(농지확보의 어려움) 한계가 있다.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서 직불제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. 쌀값은 물가상승률과 소득 감소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. 또한 쌀값 조사체계와 발표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. 현재 1가마니 80kg 기준의 쌀 가격 발표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10kg, 20kg으로 소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다(위남량).

○ 먼저 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. 그런 후 필요한 농지면적을 계산해서 확보하고 식용쌀의 감소로 소비가 한계에 부딪히면 대북용, 가공용으로 가야하는 전반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(위남량).

○ 작년 쌀 생산량이 잠정적으로 390만 톤으로 떨어졌다. 품질을 강조하다보니 생산량이 감소했고, 벼농사는 85%가 1ha 미만의 소농으로 가족 먹거리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. 현재 젊고 지식을 가진 농업인들은 채소, 잔디, 나무 등 소득이 좋은 업종으로 빠지고 어르신들만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이다(위남량, 문헌팔).

○ 정부는 농업에만 치우쳐서 지원하지 말고 농촌사회 복지에 지원해야한다. 농촌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와 맞먹을 정도가 되어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산다. 현재는 농촌근로자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0%정도로 약하다. 총체적인 책임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맡을 수 없다(문헌팔).

(국회 세미나 개최 건)

○ 최대한 빠른 시일 내(4월 중순 논의)에 국회에서 실시하자. 총 주제(정책, 소득, 공급, 수요 전반적인 내용)를 한 분이 발표하고, 나머지는 섹션별로 발표하자.